해양부, 해운항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발표

해운물류는 중앙대와 해사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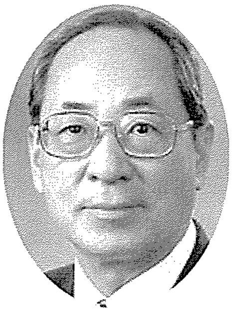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9일부터 6월15일까지 공모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해운물류분야에 중앙대학교와 한국해사문제연구소를, 항만물류분야에 한국해양대학교를 각각 선정했다고 7월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들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해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올 한해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중 장기과정에 3억원, 단기과정에 1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3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교육은 해운회사와 항만하역 및 터미널 운영업체 등 해운항만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 위주의 2년제 대학원(석사)과정이며, 단기교육은 70시간 이내의 실무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산·학간 협력강화와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해운·항만물류 경쟁력 향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재선

101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9년 임기의 재판관에 재선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박 재판관이 6월23일 새벽(현지시각 22일 오후 1시)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출마, 참여당사국 147개국 중 무효표 27표를 제외한 101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21명의 국제해양법 재판관 중 올해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7개국의 재판관에 대한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재판관은 △아시아 2명 △아프리카 2명 △서구 1명 △동구 1명 △중남미 1명 등 모두 7명이다. 아시아권 2석의 재판관 선거에는 우리나라 박춘호 현 재판관을 포함, 일본과 이라크에서 3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해 우리나라와 일본 후보가 당선됐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산하의 유엔기구로 1996년 10월에 구성돼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분쟁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박춘호 재판관은 1996년 8월에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 9년간 재임해 왔다.

이번 박춘호 재판관의 재선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된 국제사회의 해양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됐다.